

A Note on the Speed of Structural Changes and Economic Growth: Cases of Korea and Japan

Hongyul Ha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Economic development is a dynamic process involving both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 speed of structural change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as it shapes the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of nations. The current stagnant economic situations of Japan and Korea can largely be attributed to the slowing speed of structural change. This study traces structural change in both countries since the 1970s. The study identifies a notable deceleration of structural changes in both economies since the 2000s. The finding suggests that both economies have failed to upgrade their industrial structures significantly while the world economy has experience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speed of structural change strongly influences economic growth. As the speed of structural changes reflects the capacity of an economy to allocate resource efficiently, it could be a good candidate index for innovation. Therefore growth stagnation in both economies may be an inevitable result of delayed structural transformation, suggesting that Korea and Japan may face the “advanced income trap”. While both countries have pursued industrial policy reform in one way or another, those efforts appear ineffective in producing real change when measured by the speed of industry structure in this study.

Keywords

Economic Development, Industry Structure, Growth Rate, Trade Structure, Korea, Japan

* Han, Hongyul, Department of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Email: hongyulhan@gmail.com

구조변화 속도와 경제성장에 관한 소론: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홍열*

한양대학교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구조변화 속도 추이를 추적하였고 양국 모두에서 2000년대 이후 그 속도가 빠르게 감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 세계경제에서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한 두 국가가 근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구조변화의 속도는 경제성장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 구조변화의 속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효과를 대리하는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구조변화 속도를 한 경제의 혁신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양국 경제에서 성장률 정체 역시 구조변화 지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 경제의 구조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무역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제어

경제발전, 산업구조, 구조변화의 속도, 무역구조, 한국 및 일본경제

* 한홍열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hongyulhan@gmail.com

1. 서론: 경제발전에 있어서 구조변화의 속도 문제

경제발전의 목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전반적 자유 확대라는 Sen(1999)의 정의는 유효하다. 성장과 구조고도화는 경제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경제발전을 성장과 구조변화의 과정과 거의 동일시 하는 관점이 타당한 이유는 분명하다. 경제성장은 경제적 자유 확대를 위한 물질 토대를 확대하고 구조고도화는 산업과 직업 그리고 삶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¹⁾ 따라서 한 국가의 성장과 산업고도화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삶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Rodrik(2022)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을 넘어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현대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구조전환의 필요성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무관한 것임을 말해준다.

성장과 구조고도화의 동태적 속성을 감안하면 구조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노벨경제학상이 허쉬만(Alfred Hirshman)이 아니라 루이스(William Arthur Lewis)에게 주어진 것은 경제학의 실천적 관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²⁾ 허쉬만은 개발도상국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고자 불균등 성장전략을, 루이스는 전 부문의 균형적 성장 필요성을 주장한 점에서 크게 대비된다. 적어도 20세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어느 접근이 더 유효한지 거의 판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 두 이론은 경제발전론의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구조전환의 속도를 위한 현실적 처방으로서 차이를 드러내었다고 생각된다.

1) 물론 ‘질적 향상’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고도화된 산업’ 및 ‘높은 소득과 노동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2) W.A.Lewis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을 때 Hirshman은 프린스턴대 고등경제원에 소속해 있었다. Michele Alacevich(Albert O. Hirschman. An Intellectual Biography)가 쓴 전기에는 명시적 증거는 없지만 당시 Hirshman의 실망한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미국의 학문적 풍토와의 차이 때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는 허쉬만 계열의 접근방식을 포함한 수정주의적 이론이 항상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교과서적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구조고도화와 관련하여 실천적 유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혁신은 변화다.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자체가 혁신이다. 생산요소의 축적에 따른 상대가격의 변화, 산업정책 또는 여하한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이든 구조가 고도화된다면 혁신은 일어난 것이다. 변화는 속도의 함의를 갖고 있다. 혁신이 변화를 낳는다 하더라도 진전 속도에 따라 경제발전의 성과는 달라진다. 성공적 경제발전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측면에 더하여 국가 간의 상대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모든 경제는 구조전환 과정을 거치지만 그 속도는 다르다. 소위 중진국의 함정도 구조전환 속도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처럼 선진국에 도달한 이후 정체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에 도달한 이후 추가적 구조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함정’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만이 차이이다.

국가들의 산업화 시차는 크고 이는 주로 구조변화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 차이가 특정 시점에서의 절대적 발전단계의 수준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구조변화의 속도가 경제발전에 갖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⁴⁾ 본 연구는 구조변화 그 자체가 혁신이며 변화의 속도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성장과 구조상의 정체 문제를 구조변화의 속도와 연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연구배경이다. 양국이 현재 경험하는 경제적 정체 상황이 단순히 경기순환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배경인 것이다.

구조고도화는 장기적인 변화로 간주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의 축적이기도 하다. 구조고도화가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단기적으로 미시적 구조변화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OECD가 제공하는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산업구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속도의 변화지수를 구축하고 본 지수의 변화가 양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한편, 구조변화가 세계경제의 변화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도 지속적 성장을 위하

4) 성장과 구조변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한 조사는 Han(2022)의 연구가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 필요하다. 제 3장에서는 양국에서 진행된 구조변화가 세계경제의 전반적 흐름과 적합성을 갖는지를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작업은 구조변화의 속도와 함께 변화방향과 산업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구조변화의 방향성과 산업정책의 적절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제 4장은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구조변화 및 그 속도에 대한 분석이 갖는 경제발론적 의미와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토론을 포함한다.

II.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와 경제성장

1. 선진국의 구조고도화와 Kaldor Fact

한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 경제의 성장과 구조고도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Kaldor의 제 1법칙을 원용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조업 부문의 확장이 전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라는 주장이 그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196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서 당시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증적 관찰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법칙에서 ‘제조업’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면 경제발전론적 관점에서 현재에도 준용할 수 있다. 이 법칙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 산업화를 이미 거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Kaldor가 제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이 존재한다면 이 부문으로의 고도화 필요성은 여전하다. 이를 위한 산업정책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전통산업에서 제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의 유도 그리고 적절한 무역정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이슈 역시 대상 산업을 막론하고 여전히 보편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산업과 기술은 새로 탄생하고 진화하지만, 정책 수단의 집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⁵⁾

5)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정책수단들은

〈표 1.〉 한국과 일본의 장기 산업구조 변화

	일본			한국		
	1970	1990	2008	1970	1990	2009
농수산업	6.0	2.5	1.4	29.1	8.7	2.6
광업	0.8	0.2	0.1	1.6	0.8	0.2
제조업	33.5	26.1	19.9	18.5	26.9	28.1
식음료	3.6	2.7	2.4	3.6	2.0	1.4
섬유의류	2.6	1.2	0.4	5.2	3.6	1.2
목재및제품	0.8	0.3	0.2	0.6	0.2	0.1
종이펄프	2.0	2.0	1.4	1.1	1.4	1.2
화학제품	5.8	4.1	3.4	2.6	3.9	4.3
비금속광물	1.4	1.0	0.6	1.2	1.8	1.1
금속제품	5.9	3.7	2.4	0.5	3.7	4.0
기계장비	7.1	7.7	5.9	1.5	6.3	9.5
운송장비	3.3	2.5	2.8	1.6	3.1	4.9
기타제조품	0.8	0.8	0.4	0.7	0.9	0.4
가스수도	2.4	3.2	2.8	1.3	2.1	1.8
건설	7.3	9.7	5.8	5.1	10.4	6.9
도소매음식숙박	17.1	16.1	17.6	16.7	14.5	11.3
수송창고통신	7.0	6.5	6.6	6.6	6.7	6.4
금융보험부동산사업	14.3	20.8	27.0	7.3	15.2	21.3
공동체사회개인	11.5	14.9	18.9	13.7	14.8	21.4

자료) OECD STAN Database 사용 저자 작성

구조전환의 속도는 경제성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산업구조의 변화는 반드시 장기적인 분석의 대상만은 아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산업화는 차치하더라도 20세기 후반 한국의 경험이 말해준다. 더구나 한국의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경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한 것은 대략 10

여기서 열거한 범위에 완벽히 속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비록 일시적 ‘엄포’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정책수단의 범위가 한정적임을 말해준다.

년 단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의 대폭적인 구조변화만 보더라도 매년 단위로 부문 간 생산요소의 빠른 이동과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한국경제가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구조변화의 ‘속도’와 ‘성장’의 관계는 산업구조가 대체로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방향으로 진행하면 자원의 이동은 성장의 촉진으로 연결된다. 수출의 급속한 확대로 자본축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요소 상대가격의 변화는 같은 효과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정부가 인센티브 체계를 왜곡시킴으로써 당시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 분야로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였다. 결국 자원의 이동이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즉 구조변화의 ‘속도’가 경제성장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요약하자면, 산업구조가 전향적으로 즉,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변화의 속도와 경제성장률을 직접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혁신의 구체적 모습이기도 하다.

2.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속도와 경제성장

구조변화의 속도는 대체로 세부 산업별 생산 비중 변화의 총합으로 측정되고 성장에 일정한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Schiavo-Campo 1978, Dietrich 2012, Han 2022). 이러한 측정 방식은 생산 비중의 변화가 구조고도화와 일관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단순한 수식이지만 타당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chiavo-Campo(1978)의 단순한 계산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식.1). 위 연구에서는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가 2중 계산된다는 의미에서 비중변화 절대값의 총합을 2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늘어나는 변화와 줄어드는 변화의 단순 합이 전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총합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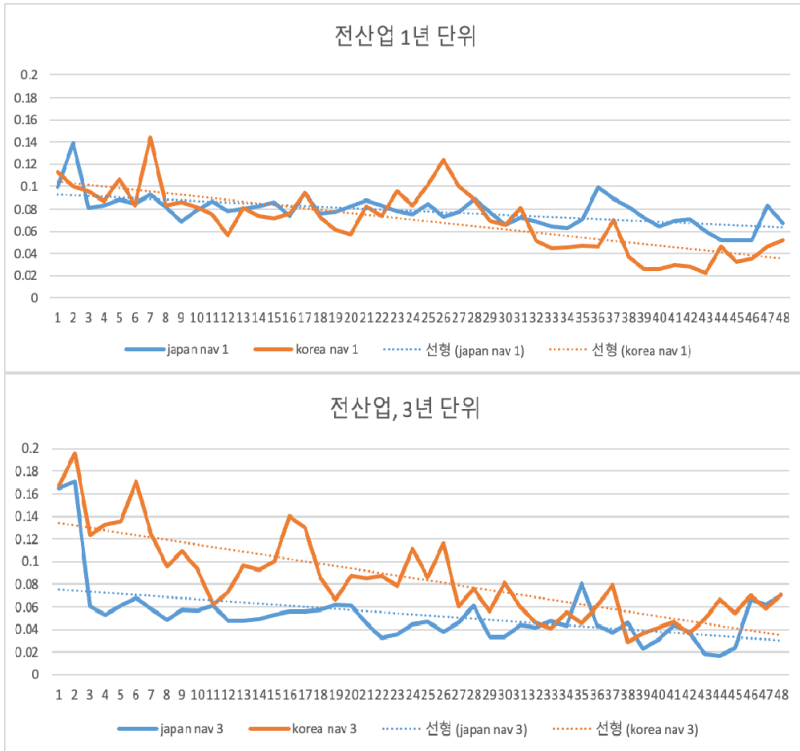
〈식. 1〉

$$Speed(t1, t2) = \sum_{i=1}^j |Share_{t2i} - Share_{t1i}|$$

주) t1, t2는 두 시기, Share i=1,2,...,j 산업 세분야의 부가가치 비중이다. 따라서 Speed(t1,t2)는 두 기간의 산업별 비중 변화의 절대값을 더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로 정의한다. 이 값은 구조변화 정도의 기간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며 값이 클수록 구조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OECD 통계를 활용한 1973년부터 Covid 19가 시작된 2020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구조전환 속도의 추이를 보여준다. 첫째, 이 그림의 위쪽 패널은 구조변화 속도를 1년 단위로, 아래쪽 패널은 3년간을 단위로 측정된 변화속도 추이이다. 흥미로운 점은 1년을 단위로 한 측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구조변화 속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일본이 미세하나마 높은 속도의 추세를 나타낸 연도가 더 많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이는 매우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추격하는 국가의 구조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을 것이라는 상식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구조적 변화가 같은 시기에 일본보다 미약했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기 쉽지 않다.

<그림1.>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1973-2020)



주) 한국과 일본 모두 1973-2020 기간의 변화임. 제조업과 서비스업 총 22개 세부 산업 간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OECD STAN Database 활용 저자 작성

이러한 의문은 구조전환 속도의 측정 기간을 3년으로 확장하면 해소되는 듯하다. 즉, 아래 패널은 1973년에서 1976년간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각 3년간의 구조변화 속도 추이를 보여준다. 아래쪽 패널에 의하면 거의 전 기간에 걸쳐 한국의 구조전환 속도가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사실이 확인하다. 중기적으로 한국의 산업구조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평가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근년 들어 양국의 전환속도가 수렴하는 특징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구조변화 속도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둘째, 1년 단위의 연간 속도는 3년 단위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그 추세가 당연히 완만하다. 물론 양자의 값 차이가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그 차이가 현저하게 크지는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우선 산업간 비중의 변화가 일정기간(여기서는 3년)에 걸쳐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측정할 속도가 3년 단위보다 높은 경우도 다년간에 걸쳐서 나타나거나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양자의 값이 거의 수렴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체 비중이 일정한 수준에서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변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세부 산업 간에 양방향 이동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구조변화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향적 이동이라는 대전제를 적어도 근년에 있어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를 말해준다.⁶⁾

셋째, 전반적으로 구조변화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가량의 중기적 측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이 시작되는 초기에 높이 측정되고 이후 2~3년에 걸쳐 마무리되는 평균적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⁷⁾ 양국의 산업화 시차를 감안하여 한국의 90년대 구조변화 속도를 일본의 70년대 초반과 일치하여 비교해 보면 속도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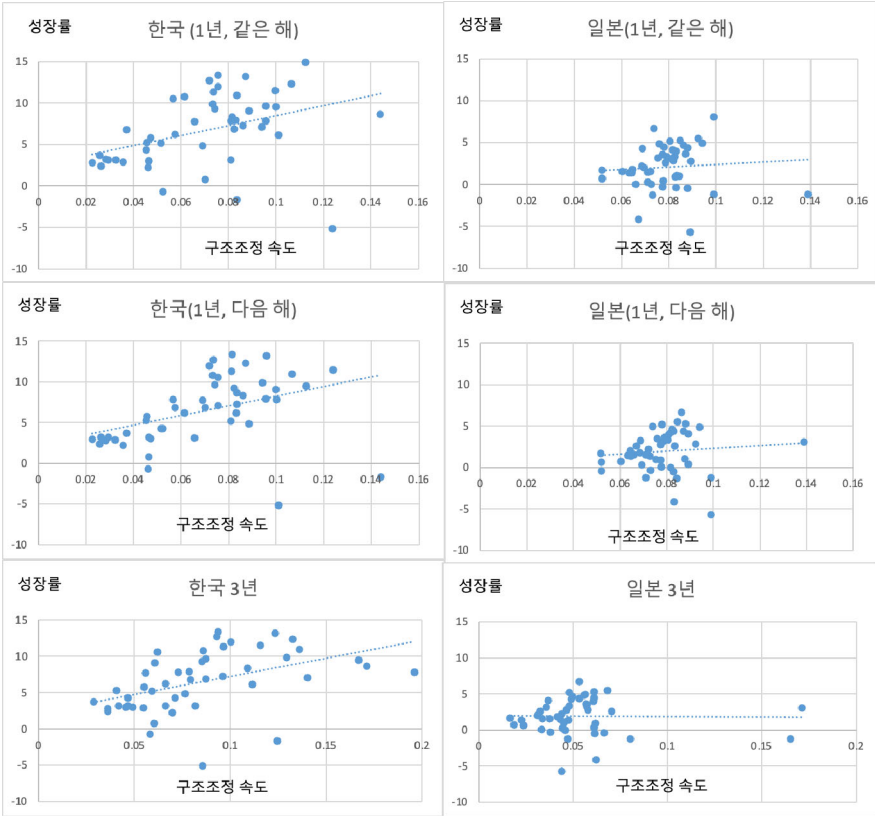
본 연구의 중요한 질문은 구조변화의 속도가 경제성장을 실제로 촉발하는 가이다. 구조변화 속도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그림 2>가 잘 보여준다.

- 6)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환율의 변화가 구조변화를 지연하거나 역전시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경쟁력에 크게 의존하는 수출 위주 산업의 사양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그 속도가 크게 둔화하거나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극적인 사례이지만,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과정의 원활화 정책의 강도가 정치사회적 환경에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7)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기간의 격차를 생각하면 위 그림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한국이 산업정책을 통하여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거의 갖춘 것은 80년대 중 후반임을 감안하면 위 그림의 비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측정 기간을 4, 5년으로 늘렸을 때도 3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3년간의 구조변화 측정치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경우 구조변화의 속도가 일본에 비하여 전반적 수준과 연도별 변동폭이 크다. 한국의 경우, 구조변화의 속도가 성장률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구조변화 속도와 성장률이 낮고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변화가 성장률에 양(+)의 인과적 효과가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Han(2022)의 연구에서 대체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양자 간의 관계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 중의 하나는 구조변화 속도가 경제성장의 동행지수인가 아니면 선행지수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구조변화의 자원배분 과정 그 자체가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지며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원 이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비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선행지수로 간주할 수도 있다. 즉, 전기의 구조변화는 다음 기의 경제성장률로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는 마찰적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작아지며 구조변화 이후 본격적인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림 2>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의 그림은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구조변화 과정에서 마찰적 비용의 비중이 크지 않거나 구조변화가 이행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모두 지불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실제로는 산업 세분야라 할지라도 매우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선행성과 후행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림 2〉 구조변화 속도와 경제성장률



자료) OECD STAN Database 및 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위 그림은 각각 성장률과 구조조정 속도간의 상관관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첫 번째 열의 그림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구조조정 속도(x축)가 측정된 해와 같은 해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준다. 두 번째 그림은 구조조정 속도(x축)가 측정된 해와 그다음 해의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지막 열의 그림은 3년간에 걸쳐 일어난 구조조정의 속도와 3년간의 성장률 관계를 보여준다.

주) 구조조정 속도와 성장률은 각각 당해 기간의 경사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표 2>는 구조변화의 속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앞의 그림이 보여주는 정보와 같으나 구조변화

속도의 성장효과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표 2>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구조변화의 속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1년 치 변화와 3년간 변화 모두 구조변화의 속도는 성장률에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는 시차 변수를 도입할 경우, 두 경우 모두 2기 전의 변화만이 유의한 값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한국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일단 1년 치 및 3년간의 변화 모두 성장에 영향이 없다. 또한 시차 변수를 적용할 경우, 바로 전기의 구조변화 속도가 유의한 값을 갖는 것도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표 2.> 실증분석 1: 구조변화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효과

1년 기준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종속변수: 연 실질성장률				
상수	2.86(1.54)*	1.63(1.36)	0.92(2.13)	-2.56(2.77)
구조변화	56.65(26.36)**	-16.68(39.05)	14.65(26.78)	-29.52(27.40)
구조변화(1)		28.84(22.86)		72.20(29.73)**
구조변화(2)		66.72(26.60)***		19.59(35.67)
	R2 : 0.1416 F 값: 7.7428(0.009)	R2 0.2593 F 값: 4.7843(0.005)	R2 : 0.006 F 값: 0.2995(0.586)	R2 : 0.1649 F 값: 2.7660(0.0535)
3년 기준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상수	2.83(0.75)***	1.50(0.59)**	1.63(2.40)	1.85(1.67)
구조변화	45.85(8.41)***	7.80(12.50)	7.29(32.67)	-41.10(27.23)
구조변화(1)		15.26(13.53)		81.59(25.55)**
구조변화(2)		42.68(12.50)***		13.48(29.81)
	:R2 : 0.3735 F 값: 25.042(0.000)	R2 : 0.2593 F 값: 4.7843(0.005)	R2 : 0.001 F 값: 0.0814(0.776)	R2 : 0.1859 F 값: 3.1217(0.0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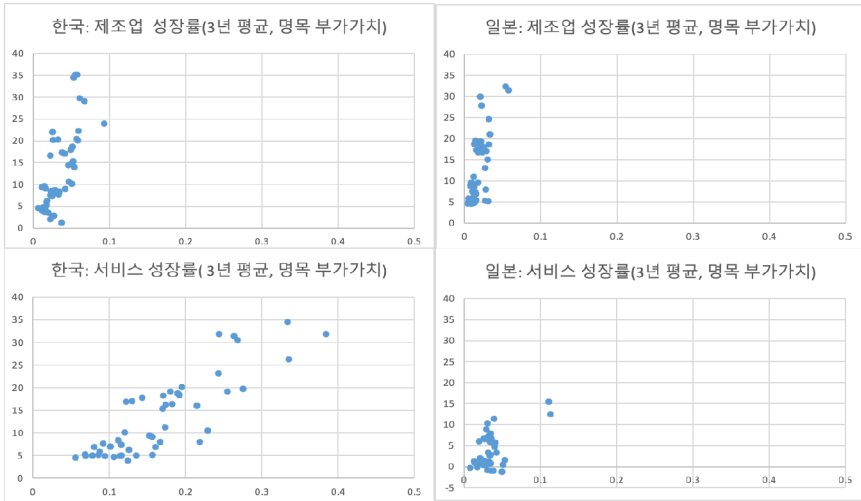
주)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

위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전환을 동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재확인이다. 경제발전이 구조고도화와 성장이 동반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위의 단순한 실증분석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구조변화의 속도가 약 3년의 증기에 걸쳐서 경제성장의 효과로 나타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 1)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판단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매우 다른 양상인데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변화의 속도도 느리고 경제성장률도 낮은 상황에서 양자 간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3>은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구분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명목 부가가치 증가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양국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상당히 다른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양자 간의 관계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제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대체로 0.05에 대체로 수렴하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0.1 수준에서 가장 밀접하여 있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 변화속도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0.2 이상을 기록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서비스업 내에서 매우 활발한 구조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3.〉 구조변화와 경제성장: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료) OECD STAN Database 및 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y축은 성장률 x축은 구조조정 속도를 나타낸다.<그림 2>의 주를 참조할 것

〈표 3.〉 실증분석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전환 속도와 성장률

제조업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종속변수: 3년 이동평균 성장률				
상수	2.86(1.54)*	1.63(1.36)	0.9896(2.37)**	-0.33(0.40)
구조변화	56.65(26.36)**	-16.68(39.05)	64.83(21.59)**	21.98(28.83)
구조변화(1)		28.84(22.86)		29.93(35.31)
구조변화(2)		66.72(26.60)***		96.03(31.94)***
	R2 : 0.1416 F 값 7.7428(0.009)	R2 0.2593 F 값 4.7843(0.005)	R2 : 0.1779 F 값: 9.0915(0.0043)	R2 : 0.3865 F 값: 7.9819(0.0003)

서비스	한국		일본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상수	-2.31(1.24)*	-5.84(0.99)***	-0.50(0.69)	-2.60(1.83)
구조변화	96.33(8.37)***	43.47(9.78)***	124.71(16.21)** *	103.71(23.20)** *
구조변화(1)		34.05(16.22)		29.89(36.96)
구조변화(2)		44.43(14.79)**		52.47(73.97)
	R2 0.7158 F 값 105.7159(0.000)	R2 0.8471 F 값 70.2180(0.000)	R2 : 0.3483 F 값: 22.4496(0.000)	R2 : 0.3514 F 값: 6.8654(0.000)

주) 성장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명목 부가가치 증가율임
자료) 각 부문의 성장률은 각각의 명목부가가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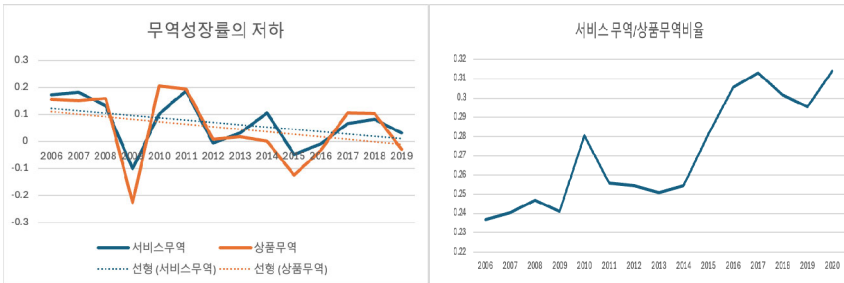
한편 <표 3>의 실증분석 결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모두에서 구조변화가 성장률에 강력한 효과를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구조변화 속도는 제조업에서도 성장률에 강한 성장효과를 갖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 그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조변화 속도의 시차 변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앞의 전반적인 구조변화 속도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와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표 2>와 <표 3>의 분석 결과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양자의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전자는 경제 전반의 구조변화 속도와 실질경제성장률, 후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각각 내에서의 구조변화 속도와 각각의 명목 부가가치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자는 구조변화의 효과가 매우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Ⅲ. 구조변화의 방향성과 산업정책

1. 세계 무역구조를 통한 산업구조 변화의 방향성 평가

앞장의 논의는 변화와 성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구조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구조변화는 시장의 진화 과정이므로 사전적으로 방향성을 논하기는 어렵고 본질적으로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구조변화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국가별로 특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현대 경제사에서 매우 예외적 현상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구조변화의 과정 그 자체가 일정한 위험을 내포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구조변화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흥미롭지만, 이를 위한 객관적 ‘준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무역의 구조변화를 사용하기로 한다. 수출과 수입은 각 경제의 초과공급과 초과수입의 총합이다. 따라서 무역구조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생산 및 수요구조의 변화를 종합하는 정보이다. 산업구조가 무역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 산업구조 및 기술의 진화방향과 정합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 다른 세계화의 양상:보이지 않는 무역의 확대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MAP 통계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2000년대 이후 무역성장률의 감소, 특히 무역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밀돌면서 세계화뿐만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무역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었다. <그림 4>에서 드러나듯이, 무역성장률의 지속적 감소는 세계화의 퇴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중국 간의 신산업을 둘러싼 헤게모니 분쟁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글로벌공급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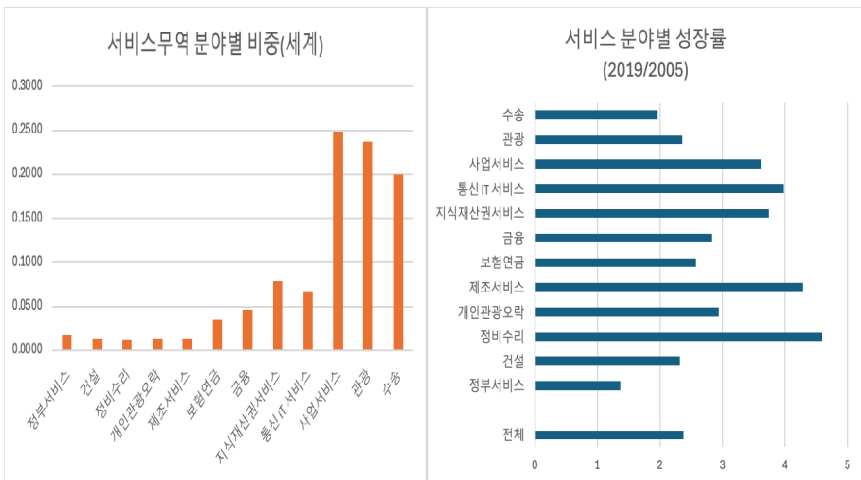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세계경제의 산업 및 기술의 구조적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무역이 아니라 소위 ‘보이지 않는 무역’의 중요성이 확인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무역증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상품 무역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23%대에서 31%대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세계경제의 통합성 약화 즉 세계화의 후퇴가 아니라 세계화를 측정하는 기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식재산권 거래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정형화된 사실이다. 세계경제 전체 부가가치 비중에서 1,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무역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물론 <그림 4>는 상품무역 보다는 완만하지만 서비스무역 역시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비교역적 특성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통계로 측정될 수 없는 기업내 서비스 및 기술이동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세계화가 후퇴한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세계화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근거이기도 하다.⁸⁾

<그림 5>는 서비스 무역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구조의 변화는 생산 현장과 시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따라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근년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 및 기술의 대전환 현상이 서비스 무

8)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의존도에는 일정한 한도(limit)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은 어쩌면 그 한도에 접근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세계화는 무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상상태에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역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빠르게 증가한 서비스 무역 분야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와 결부된 서비스, 서비스 자체의 국경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른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한 초지능화 및 초연결성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이는 서비스의 비교역적 특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서비스무역의 제약요인이 크게 해소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결합 필요성이 줄어들고 상품무역과 같은 형태의 국경 간 이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Struyven & Hatzius(2022)의 연구가 소개하는 바와 같이 국경 간 인터넷 대역폭이 2008년 이후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그림 5.〉 서비스무역의 구조변화



주) 2020년부터의 Covid 19 효과를 제외하기 위하여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함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map Database 활용 저자 작성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사업서비스와 제조서비스 무역의 증가이다. 이는 사업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최근 생산활동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서비스 융합의 트렌드를 반영한다.⁹⁾ 이 현상은 세계화 과정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국제적 생산분업에 나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반면에 관광과 수송 등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무역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그 성장세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산업구조 전환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데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변화로 생각된다.¹⁰⁾

<그림 6>은 Covid-19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무역구조를 세계 평균과 비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앞에서 강조된 사업서비스, 금융 지식재산권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세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수송과 건설서비스는 평균을 크게 초과한다. 그리고 제조서비스와 통신 및 IT서비스 역시 세계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한국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양국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모두 서비스무역의 구조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그림-6>의 아래쪽 패널은 주요 사업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의하면, 오늘날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주요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단편적 관찰을 통해서 산업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 방향이 세계경제의 진행 방향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 9) 간단한 사례로는 섬유 및 의류의 무역은 외견상 상품무역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매우 많은 서비스가 포함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남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류제품의 부가가치에는 미국 유명 의류회사의 디자인, 회계, 법률, 물류 및 유통 등의 서비스가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넓은 범위에 걸쳐 가전제품에도 해당된다. 즉, 현대 제조생산활동에 있어서 서비스 요소가 전방 및 후방에 투입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사업서비스 분야의 확대를 결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10) 최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따라 글로벌공급망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글로벌공급망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그 방향이 한 경제 내에서 생산과정을 모두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생산활동 전체가 미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분업 구조에 따른 새로운 가치사슬이 형성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은 오히려 서비스무역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과 구조변화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은 구조변화 속도와 방향성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두 나라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과 함께 제조업 중심 경제의 대표이며 영국과 미국의 금융 중심 경제와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초반과 후반에 각각 구조고도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이들의 산업정책이 최근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흥미롭고 이미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은 구조변화를 위한 투자의 결심(decision to invest)¹¹⁾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기존의 구조를 강화하는 제도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배경에서 산업정책이 전적인 역할이 아니라 해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진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1950년대의 원시적 수입대체(Easy Import Substitution), 2) 1960년대의 수출촉진 및 전략적 수입대체, 3)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HCI) 육성, 4) 1980년대의 산업합리화와 세계시장 확대 5) 1990년대의 세계화 및 IT 및 지식산업 육성 등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의 공통된 특징은 주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축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구조변화의 속도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3)과 5)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 2장의 <그림 1>이 보여주듯이 1970년대와 1990년대 후반에 있어서 구조조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서도 확인된다. 첫째, 3)의 단계에서 산업정책은 추격과정에 있어서 전방위적 투자를 통하여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불균형 창출과 연계효과를 거두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시스템과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전략 산업에 충분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준자본시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었던 석유화학, 기계, 전자 및 조선 산업 등은 제조업 분야의 추격과정에서 일종의 모범답안으로 간주되었지만 투자규모와 필요 기술의 관점에서 정부의 위험부담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11) 이 역시 Hirshman이 사용한 용어로서, 개도국의 발전에 가장 부족한 요소가 바로 한 공동체가 변화를 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결심이라고 보았다.

둘째, 5)의 단계는 1999년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술 개발 5개년 계획(2000-2004)'을 도입한 것으로 출발하였다. 소위 IT Drive라고 지칭해도 무방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시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계획은 70년대의 전락산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는데 소위 90년대 초반 IT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New Economy'가 모형이었다. 핵심 이니셔티브는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 미디어,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를 포함한 6개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골자로 하였다. 제 5) 단계에 이행된 제 2차 산업정책의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뿐만 아니라 소위 '지식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 정보 사회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계획"을 도입하였다. 1999년 초에 한국은 이미 인터넷 마케터, Java 개발자, IT 컨설턴트, 웹마스터 및 인터넷 비즈니스 개발자와 같은 IT 전문가 부족을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기한 것이다.¹²⁾

그러나 한국의 현재 산업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위의 두 단계 이외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각 정부들이 각기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이 이전의 3)과 5)단계에서 형성된 기존의 구조를 바꿀 수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부터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의 산업은 메이지(1868~1905) 및 고도 성장기(1953~1973) 동안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와 수출 지향적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핵심적

12) 이러한 정책의 또 다른 배경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독점적 구조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독점적 재벌 중심 경제로 인한 한국경제의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인식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독점을 완화하려고 하였다.

13) 물론 유정호(2009)와 같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의 요인으로서 산업정책보다 국제분업구조의 효과적 편입이라는 시장중심적 해석도 있으며 이 역시 충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신고전학파의 주류적 견해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주장보다는 거의 매 정부마다 산업정책이 수행되었음에도 일부 시기에만 구조변화에 유효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 역할을 했다.¹⁴⁾ 일본은 1980년대 들어 ‘창조적 지식집약화’의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의존한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통상산업성(MITI)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에 정책적 자원을 추진하였다. 그 분야는 주로 전자, IT 기술, 의료기기에 집중되었는데 초대형 집적회로(VLSI) 프로그램은 차세대 컴퓨터 개발을 통해 IBM과 같은 시스템 프로젝트와의 경쟁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의료 및 복지기구 연구개발 프로그램(RDPMDWA)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은 기존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 시기 산업정책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플라자 협정을 통하여 정부의 개입이 국제사회에 의하여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이라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플라자협정 이후 일본 경제가 일시적 호황을 거치면서 버블붕괴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기초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으나 이것이 일본의 경제구조에 여하한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였는지 뚜렷하지 않다. 산업정책은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성격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정책은 규제개혁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그리고 민간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글로벌 규범과의 합치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산업정책은 직접적인 구조개혁 보다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간접적 수단이 중심을 이루었다. 예컨대 산업 기술 진흥법(2000)은 일본의 '산업기술 및 기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학계, 정부의 R&D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공공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성과와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서 민간사업자로의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1998년)'과 '산업 활성화 특별조치법(1999년)' 그리고 산업기술진흥법(2000)이 도입되었다.

근년에 있어서 일본의 주목할 만한 산업정책은 소위 아베노믹스하의 산업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위 3개의 화살이라는 정책방향의 하나로 민간투자

14) 일본의 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자세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재형의 “일본의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2018)”을 참조할 것

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0년의 산업구조 비전 2010을 이행하기 위한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산업구조 비전 2010은 일본 산업의 제조업 의존도가 갖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일본이 새로운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전통적 비즈니스 모형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일본이 뒤처져 있는 현실은 인식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성장의 지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재형(2018)의 연구에서 정리하다시피 일본 내에서도 산업정책의 역할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시 한번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적어도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구조상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상의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에는 변화를 창출에 필요한 ‘투자의 결심(decision to invest)’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제 2장의 관찰에 따르면,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크지 않고, 변화의 속도 그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적어도 근년에 시행된 다양한 정책이 과거와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과 기술의 대전환 시점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산업은 기존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조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두고 볼 때, 구조변화상의 정체가 성장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분야의 창출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위험부담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산업정책의 귀환이 일반화되는 작금의 현상도 산업의 대전환 추세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적어도 현재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사회전반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구조변화와 성장의 관건으로 보인다.

IV. 결론: 혁신으로서의 구조변화

경제발전이 구조변화와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동태적 과정이므로 구조변화의 속도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구조변화의 속도는 결국 경제발전의 상대적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전향적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속도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정체는 결국 구조변화 및 그 속도의 정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구조변화 속도를 추적하였다. 양국 다 같이 2000년대 이후 빠르게 그 속도가 감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세기에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한 두 국가가 근년에 있어서는 뚜렷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구조변화의 속도는 경제성장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변화의 속도는 실제로 자원의 효율적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효과를 대리하는 변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한 경제의 혁신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하락 역시 구조변화 지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구조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세계의 무역구조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국과 일본 경제는 ‘선진국의 함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이러한 위기를 겪는 것은 일종의 ‘성공의 역설’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이 시도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조변화의 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혁신의 시도가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재벌과 기존의 핵심 제조업 등 구조고도화에 성공한 과거의 경험과 유산 때문에 새로운 구조를 효과적으로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성공의 역설이다. 반면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투자의 결심은 전반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구조변화의 속도가 갖는 의미를 기초적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구조변화가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향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보다 세밀한 실증적 분석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20세기만 돌아보더라도 중진국과 선진국 함정에 놓인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 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무역구조를 준거로 그 방향성을 검토하였지만 향후 보다 엄밀한 실증적 연구의 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 유정호. (2009). 한국의 고속성장에서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포럼*. 2집 3호 57-72 서울: 한국경제학회
- 이재형. (2018), *일본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Alacevice, Michele (2021), *Albert O. Hirschman, An intellectual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Chiavo-Campo, Salvatore. (1978), The Simple Measurement of Structural Change: A Note. *Economic Record*, 54: 261-263.
- Han, Hongyul (2022). Structural Change as a Source of Growth: An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Analyses and Alternatives*. No.1 Vol 6. 195-222
- Sen, Amartyr(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Dietrich, Andreas (2012) Does growth cause structural change, or is it the other way around? A dynamic panel data anlysis for seven OECD countires, *Empirical Economics*, 43(3): 915-944
- Struyven, Daan & Hatzius, Jan (2022), Is the World Deglobalizing? in (De)globalization Ahead?, *Global Macro Research*, No.108, Goldman Sachs

Manuscript: May 07, 2025; Review completed: May 28, 2025; Accepted: Jun 6, 2025